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2. 12. 29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2.12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0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7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물동량 회복세 진입
- 2 광양항,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시스템 성능시험장 건설
- 3 군산항 자동차 부두, 노후항만 개축사업 대상 선정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일부 항만 공 컨테이너 적체 문제 심화
- 2 에버그린, 파나마터미널 인수 등 항만투자 확대
- 3 로테르담항, '23년 1월부터 '혼합 접안' 공식 허용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컨테이너 공급 과잉 지속 우려
- 2 세계 석탄 소비 80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3 정부,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으로 '50년 170조 원 산업으로 키울 계획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신항 일대 안벽 퇴적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¹⁾

- » 최근 부산항 신항 14부두 안벽 수심이 최대 2.2m만큼 얕아진 구간이 발생, 이는 당초 예상한 퇴적 속도보다 약 5배 정도 빠른 속도임
-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2만 2,000TEU급 선박이 접안하기 위해서는 수심 16~17m 유지가 필요하나 일부 구간이 13.7m까지 얕아짐
- 신항 일대는 연간 최소 5cm에서 최대 9cm의 퇴적물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이 5년마다 수행하는 '항만해역 정밀수로 측량' 결과 일부 구역에서 최대 2.2m의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확인됨
- » 일부 구간이긴 하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도선사회 측에 저심부 운항 시 만조 때 입항하도록 하는 등 안전지침을 내림
- » BPA는 지난 12월 8일부터 약 21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2차, 3차 준설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힘
- 그 외에도 정확한 퇴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 » 일부 구간에서 퇴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준설 공사 시행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향후 퇴적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물동량 회복세 진입²⁾

- »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난 12월 9일 종료되면서 부산항 물동량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12월 10일 오후 5시 기준, 부산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32%로 집계되었으며 컨테이너 장치율도 70.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당분간은 그간 밀린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항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됨
- »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가 기대되나 여전히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 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③ 컨테이너 터미널 공동 해킹메일 대응훈련 최초 실시³⁾

- » BPA와 부산항 10개 터미널 운영사로 구성된 부산항 정보보안협의회는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12월 동안 공동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함

1) 부산일보(2022.12.13.),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1318291163534>(2022.12.21. 검색)

2) 연합뉴스(2022.12.0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8652>(2022.12.21 검색)

3) 부산항만공사(2022.12.0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8652>(2022.12.21 검색)

- 해당 협의회는 부산항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24시간 운영을 위해 '19년 BPA와 터미널 운영사들이 공동으로 발족함

» 악성코드가 포함된 피싱 메일 발송을 통해 열람 및 신고 등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인 훈련으로 정례화하여 부산항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2) 인천항

①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 구(舊) 제2국제여객터미널 임시활용을 위한 입주 기업 모집⁴⁾

» 구(舊)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및 부지는 인천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송도로 통합 이전한 '20년 6월부터 유휴상태임

- 이에 IPA가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 해당시설 용도는 운수시설이나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용도 변경도 가능함
- 임대기간은 내항 재개발 사업 착수 전까지 약 2년('23~'24년)으로 재개발 사업일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 건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건물부지가 내항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 업무, 방송통신시설로 제한됨
- 또한 물류, 제조시설 등으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주신청기업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인천항 구(舊)제2국제여객터미널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2.12.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3081&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02022.12.15>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2022.12.6.),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3264&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02022.12.15> 검색)

② IPA, 수출입 물류비용 견적 의뢰 및 가격 비교가 가능한 '인천항 해상물류 비용 견적 조회 플랫폼' 운영 개시⁵⁾

» IPA는 '22년 7월 수출입 화주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본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주 및 포워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마침

- 해당플랫폼에서 화주기업들은 출발과 도착지,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가 담긴 견적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포워드 기업들은 화주 기업들이 등록한 건적의뢰서를 확인 후 물류비 건적을 플랫폼상에서 제공할 수 있음

- 제한된 정보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최적의 운송경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 건설⁶⁾

▶ ▶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설치 및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는 '21년부터 약 150억 원을 투자해 선박 내에서 자율주행차량 이동 기술, 항만 야적공간과 선박 내부 고정밀 지도 변환 시스템 등을 개발해오고 있음
- 이번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 설치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실증에 나설 계획임
- 성능시험장은 실제 자동차 하역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야적장과 차량운반선의 내·외부를 본 딴 3층 규모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3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으로, 완공시 자율주행차량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증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⁷⁾

▶ ▶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최소면적기준을 10만 m² 이상에서 3만 m²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함

- 12월 20일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요건 중 면적기준을 완화(10만 m² 이상 → 3만 m² 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라고 함)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을 의미함
- 해양수산부는 지난 '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 선석과 중마 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 바 있음
- 이에 광양항은 현재까지 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와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등 2개의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함
-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10만 m²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업단지(3만 m²), 도시첨단산업단지(1만 m²) 등 타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규정이 엄격하여 적합한 대상지를 찾기 어려웠음
- 이번 최소면적기준 완화 조치로 인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1.22.),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47952>(2022.11.23 검색)

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12.20.),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8315&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1>(2022.12.21 검색)

4) 울산항

① 세계 첫 상업 생산 블루 암모니아 입항⁸⁾

» 울산항 2부두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터미널에 블루(청정) 암모니아가 실린 선박이 12월 13일 입항함

-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된 블루 암모니아의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이 개최됨
- 수입된 청정 암모니아는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계약된 물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화학회사 사빅AN과 아람코가 생산하여 세계 최초로 청정 암모니아 글로벌 인증(독일 TUV)을 받은 2만 5,000톤임
- 연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료 분야 국영기업인 마덴이 생산한 물량 2만 5,000톤도 수입될 예정임
- 세계 각국에서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는 많았으나, 실제 상업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가 공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② 울산항만공사(UPA), 현대오일터미널과 증설 투자양해각서(MOU) 체결⁹⁾

» UPA는 12월 21일, 현대오일터미널과 울산항 탱크터미널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함

- 협약에 따라 UPA는 현대오일터미널에 금융, 마케팅 등을 포함한 행정 지원을 하고, 현대오일터미널은 울산항 내 탱크터미널 증설을 추진하기로 함
- 현대오일터미널은 '13년 12월부터 울산항에 약 28만 kℓ의 탱크 설비 및 부두 시설을 갖추고 액체 화물 저장·보관 및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현대오일터미널은 '21년 기준,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사 중 3번째로 많은 약 300만 톤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증설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300만 톤 이상의 신규 물동량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8) 경상일보(2022.12.14.),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29>(2022.12.14. 검색)

9) 연합뉴스(2022.12.21.),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118700057?inpu=1195m>(2022.12.21.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당진시, 수소 항만구축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본격화¹⁰⁾

- ▶▶ 당진시는 지난 12월 2일 충남도 및 민간기업체와 '당진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송산면 가곡리 전면 해상에 구축 예정인 수소(암모니아)부두는 암모니아 4만 톤 규모 저장탱크 4기와 5만 톤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서 민간개발방식을 통해 '24년부터 '30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임
-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당진 송산 수소(암모니아)부두'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민간기업체에서는 지역 인력 우선채용 및 지역건설산업 참여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
- 당진시는 '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에 당진 수소(암모니아)부두를 반영하고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의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수소 항만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게 돼 화력발전소 연료, 정부 정책사업 및 연료전지 사업, 수소충전소 확대, 그 밖에 민간 수소 연관 사업체의 에너지 공급처 역할을 할 예정임

10) 당진시 보도자료(2022.12.05.), [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_0000000000014/selectBoardArticle.do?nttId=1091982&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searchWord=\(2022.12.07. 검색\)](https://www.dangjin.go.kr/cop/bbs/BBSMSTR_0000000000014/selectBoardArticle.do?nttId=1091982&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searchWord=(2022.12.07.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철강산업단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이후 출하 물량 빠른 속도로 회복 중¹¹⁾¹²⁾

- ▶▶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후 16일 만인 12월 9일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포항철강산업단지 출하 물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
-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0일 하루 출하 물량의 약 80%를 반출했으며, 동국제강과 세아제강도 제품 일부를 출하하기 시작함
- 출하되지 못한 재고가 반출입되기 시작하며, 철강 출하는 곧 파업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2월 15일 포항2열연공장을 재가동함
- 이번 재가동으로 포항제철소 18개 압연공장 중 13개(1·2열연, 2·3후판, 강편, 1·2·3·4선재, 1·2냉연, 2·3전기강판)가 정상화됨
- 포항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의 연간 생산량인 약 1,480만 톤의 제품 중 33% 수준인 약 500만 톤을 생산하는 핵심 압연라인임
- 포스코는 2열연공장을 거쳐야 하는 제품들을 1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에서 전환 생산해왔으나, 이번 재가동으로 열연 소재 수급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1) 매일경제(2022.12.11.), [https://www.mk.co.kr/news/society/10564138\(2022.12.11. 검색\)](https://www.mk.co.kr/news/society/10564138(2022.12.11. 검색))

12) 철강금속신문(2022.12.18.),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870\(2022.12.20. 검색\)](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870(2022.12.20.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 해저 케이블 물동량 증가 예상¹³⁾

- » LS전선의 4,000억 원 규모 공급계약으로 사업장 인근 동해항의 케이블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LS전선은 지난 12월 10일 영국 북해 뱅가드(Vanguard) 풍력 발전단지에 4,000억 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공급계약을 따냄
- LS전선은 지난 10월 2,400억 원 규모의 영국 북해 보아레스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12월 9일에는 대만에서 2,0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올해 대규모 수주액이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됨
- 하지만 동해항의 LS전선의 케이블은 현재 서부두 41번 선석(접안 능력: 3천 DWT, 길이: 195m)에서 선적되지만 향후 대규모 케이블 운반선(3만 톤급 예상)이 접안하기에는 선석의 길이 및 수심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동해항은 향후 발생할 대규모 케이블 운반선 접안 및 선적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임

② 묵호항, 러시아로 중고자동차 수출 시작¹⁴⁾

- » 제3부두 32번 선석(1만 DWT, 1선석)의 배후항만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12월 19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을 시작함
- '18년 항만시설 정비공사로 묵호항 제3부두 32번 선석의 일반 화물운송이 중단된 바 있음
- 지난 19일 3천 톤급 일반잡화선 ANGEL-A호가 중고자동차 60대를 싣고 러시아로 첫 출항했으며 이후 월 2~3회, 회당 최대 150대를 1만 톤급 화물선으로 수출할 계획임
- 현재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주로 부산항을 통해 수송되는데,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묵호항이 지리적 장점이 있어 향후 중고자동차 취급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13) 서울경제(2022.12.1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VGLJ70D>(2022.12.13. 검색)

1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12.16.),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Idx=95569>(2022.12.21.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보조금 지원 확대¹⁵⁾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2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함

-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가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용 경유를 구입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이번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물운송 목적으로 과세 경유를 구입한 경우 리터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되며, 이와 더불어 유가연동 보조금도 추가 지급됨
- 목포해수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12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11.29.),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95309\(2022.12.01. 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95309(2022.12.01. 검색))

9) 대산항

①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방안 논의¹⁶⁾¹⁷⁾

» 서산시는 11월 16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통해 대산항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장들과 항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간담회에는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상공회의소, 대산석유화학기업, 도선사협회, 예선협 동조합 대산지부, 하역사 등 관련 단체장 22명 등 대산항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장들이 참석함
- 간담회에서는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대산항 수출입 현황 진단, 대산항 이용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원인으로는 해상 운임료 인상, 컨테이너 정기선의 대형화만 집중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수출 비중이 높은 대산 석유화학 기업들은 다른 항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대산항 기항 컨테이너선을 늘리기 위해 대산항으로 오는 고정적인 화물 유입과 향상된 항만서비스 제공이 중요함
-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는 '국제여객선 및 크루즈선 유치 기회 확대', '운항 초기 빠른 안정화를 위한 지원', '경쟁력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책정', '예산·도선료 등의 병행' 등임
- 서산시는 앞으로 안정적인 선박(여객·화물) 탑승 및 적하(장소)공급과 수입 화물 유치를 중점으로 대산항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16) 서산시 보도자료(2022.11.17.),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85927&searchCtry=&searchCnd=all&searchKwrd=&pageIndex=3&integrDeptCode=\(2022.11.24. 검색\)](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85927&searchCtry=&searchCnd=all&searchKwrd=&pageIndex=3&integrDeptCode=(2022.11.24. 검색))

17) 디트뉴스24(2022.11.17.), [http://www.dtn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519\(2022.11.24. 검색\)](http://www.dtn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519(2022.11.24. 검색))



10) 군산항

① 해양수산부 노후항만 개축사업 대상에 군산항 자동차 부두 선정¹⁸⁾

- » 해양수산부의 노후부두 안전 확보 추진계획 대상에 군산항 자동차 부두(4번, 5번)가 선정됨
- 해양수산부는 노후 국유 부두시설 230개소에 대한 사전 안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2개 부두시설에 대한 개축계획과 62개 부두시설에 대한 유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 이중 군산항 자동차 부두(4, 5번)가 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3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23년 12월에 개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DL(Datum level, 기준면)+8m와 DL+8.5m인 자동차 부두의 높이를 DL+9m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두간 이동성 및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12.05.),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48103> (2022.12.15 검색)

11) 마산항

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운송 일부 차질 발생¹⁹⁾

- »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 창원 가포신항 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마산항, 김해 성신양회, 삼표산업 등 5개 지역에서 집합행사를 진행하여 마산항 시멘트 출하가 일부 제한되었음
- 경상남도는 마산항에 라파즈한라와 삼표시멘트의 물류거점지가 있어 시멘트 공급이 원활한 편임
- 마산항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시멘트 외의 품목은 파업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19) 경남신문(2022.12.0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91411> (2022.12.07.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일부 항만 공 컨테이너 적체 문제 심화²⁰⁾

- » 전 세계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부 항만에 공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음
 - 광저우항, 옌토포항, 서커우항 등에서 공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으며 일부 항만의 경우 야적장의 90%를 공 컨테이너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이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폭증으로 공 컨테이너 부족이 심했던 현상과 완전히 달라진 형국임
- » 중국에서 유럽 및 중동 등으로 가는 화물 운임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내 창고 혼잡도가 높아져 화물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유럽의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발생한 물류차질을 우려하여 연초 재고량을 크게 늘렸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화물 창고가 현재 포화상태임
- » 지난해 용선료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문제가 있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3년 경제 성장이 올해 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럽 내 화물 창고 재고 소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우려가 있음

② 코로나 규제 완화에 해상 물동량 증가 기대²¹⁾

-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거세지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규제 완화를 발표함
 - 광저우와 충칭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봉쇄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자를 격리시설로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격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검역 정책을 시행
- » 해당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가 해상 물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0) The Loadstar(2022.11.30.), <https://theloadstar.com/decaying-demand-sees-chinas-ports-building-empty-container-mountains/>(2022.12.21 검색)

21) Splash247(2022.12.01.), <https://splash247.com/positive-news-for-shipping-as-china-eases-covid-restrictions/>(2022.12.21 검색)

2) 아시아

① K Line, 암모니아 연료 벌크선 설계에 대한 ClassNK 승인 획득²²⁾

- » 일본의 컨테이너 선사인 K Line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벌크선 설계에 대한 일본선급 협회(ClassNK) 승인을 최초로 획득함
- K Line은 '26년 선박 인도를 목표로, 협력사와 선박 개발을 진행할 계획임
- 암모니아를 선박 연료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완료된다면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로테르담항은 '24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벙커링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② 인도, 자국 주요항만 내 LNG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계획²³⁾

- » 인도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인해 주요 항만 내 LNG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약 27억 달러(한화 3조 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 중임
- 인도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절반은 LNG 수입으로 충족되고 있으며, 특히 비료부문은 요구량의 약 70%를 충족함
- 인도에는 12개의 주요 항만이 있으며, 이 중 코친항과 칸들라항은 이미 이용 가능한 LNG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음
- 타 항만들에 LNG 저장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선박 연료 공급 뿐만 아니라 산업과 도시가스 유통을 위한 인도의 가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③ 인도, 해운 및 항만 인프라 현대화 추진²⁴⁾

- » 인도 정부는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해운 및 항만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임
- 인도는 '21년 10월 Gati Shakti라는 국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에 소재하는 경제구역을 다양한 형태로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계획임
- 마스터플랜에는 도로, 철도, 고속도로, 선박 및 항만 등 모든 물류공급사슬이 포함되며, 물류공급사슬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인프라 연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함
- 또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과 조율 과정을 통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최근 물류 부문에 있어 인도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22) Ship&Bunker(2022.11.29.), <https://shipandbunker.com/news/world/893427-k-line-wins-classnk-approval-for-ammonia-fuelled-bulker-design>(2022.12.01 검색)

23) The Economic Times(2022.11.2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gas/ling-storage-planned-at-major-ports-at-20000-crore-investment/articleshow/95750257.cms>(2022.12.01 검색)

24) FDI Intelligence(2022.12.13.), <https://www.fdiintelligence.com/content/news/india-to-invest-around-25bn-in-shipping-and-port-infrastructure-81814>(2022.12.16 검색)

④ 말레이시아 포트클랑항의 Westport,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2년도 수익 감소 전망²⁵⁾

- » 최근 3년('19년~'21년도)간 Westport의 수익은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나 '22년도에는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컨테이너 물동량도 '19년 1,086만 TEU를 기록한 이후 '20년(1,050만 TEU)과 '21년도(1,040만 TEU)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함
 - 포트클랑항의 '22년 3분기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747만 TEU로 현재 추세로는 '22년도 전체 실적이 1,000만 TEU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25) Theedgemarkets (2022.11.30.),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high-fuel-prices-prosperity-tax-put-damper-westports-2022-earnings> (2022.12.1 검색)

(단위: 백만 RM, 백만 TEU)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월 누적
수익(revenue)	2,088.6	1,614.7	1,782.9	1,975.0	2,022	1,547.9
당기순손익 (net profit /loss)	651.5	533.5	590.9	654.5	808.2	464.5
컨테이너 물동량	9.00	9.50	10.86	10.50	10.40	7.47

자료: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high-fuel-prices-prosperity-tax-put-damper-westports-2022-earnings> (2022.11.30. 검색)

3) 미주

① 콜롬비아,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지하터널 건설 계획²⁶⁾

- » PILA(Puerto International Las Americas)는 콜롬비아 북부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완전 자동화 항만 사이를 지하터널로 연결할 계획임
- 이 지하터널의 길이는 80마일이며, 자기부상에서 파생된 Maglev 기술이 적용되어 30분 이내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도록 할 계획임
 - 자기부상열차 및 선형유도추진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업을 위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교통인프라 기업인 제그라트란이 해상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파나마운하 대안시설 건설을 위해 초기에 투입될 7,5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6) Splash247.com(2022.11.28.), <https://splash247.com/colombian-alternative-to-the-panama-canal-seeks-funding/> (2022.12.1. 검색)



파나마운하 대안 지하터널
건설 계획 구간



자료: Splash247.com, <https://splash247.com/colombian-alternative-to-the-panama-canal-seeks-funding/> (2022.12.1. 검색)

② 에버그린, 파나마터미널 인수 등 항만투자 확대²⁷⁾

- » 에버그린은 파나마 콜론항 컨테이너터미널(CCT) 지분 100%를 취득했으며, 거래 금액은 2억 6,800만 달러(약 3,600억 원)임
- 에버그린은 미주 지역에 항만 거점 마련을 통해 북미 항로 위상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터미널 인근에 30헥타르 규모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북중미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CCT는 '97년 운영을 시작했으며, 13,000TEU급 네오파나막스 선박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 4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음
- 에버그린은 CCT 인수로 컨테이너 운송 및 환적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③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예정²⁸⁾

- »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뉴올리언스항만청(NOLA)은 해운항만업체와 협력하여 미시시피강 하류에 18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 새 터미널은 '포트 아메리카'와 '터미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TIL)'로부터 8억 달러를 투자받을 예정이며, NOLA와 주 및 연방도 터미널 건설에 투자할 예정임
- 현재 사업은 미 육군 공병대의 환경 검토 과정의 설계 및 허가 단계에 있으며, '25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28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터미널 건설이 완료되면, 연간 2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게 됨

27) 코리아워킹가제트(2022.11.2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6370 (2022.12.01. 검색)

28) Ship Technology(2022.12.07.), <https://www.ship-technology.com/news/new-orleans-port-louisiana-terminal/> (2022.12.08. 검색)

4) 유럽

① 독일, 부유식 LNG 터미널 운영 시작²⁹⁾³⁰⁾

-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유식 LNG 터미널을 준공함
- 독일은 석탄·석유 화력 발전소 재운영, 3기의 원자로 수명 연장 등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 옴
- 그중 부유식 LNG 터미널 운영은 수입한 LNG의 보관·재기화 설비를 장착한 선박을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임
- 내년까지 총 다섯 개 터미널이 운영될 예정이며 첫 번째 터미널은 12월 15일 빌헬름스하펜항에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12월 말에는 루브민항에서, '23년 1월에는 브론스뷔텔항에서 각각 터미널이 개장될 예정임

② EU, 탄소배출권 수익 일부 해양 부문에 할당하기로 사전 합의³¹⁾

- 12월 말 EU 탄소배출권 제도 개정에 앞서 EU는 유럽 선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탄소배출권 제도 수익을 해양 프로젝트에 할당하기로 합의함
- 현재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 거래제) 탄소 가격 기준 총 15억 유로 상당의 배출권이 해양 부문에 할당될 예정임
- 해당 자원은 청정 연료로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항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임

③ 앤트워프-브뤼헤항, CO₂수출 허브 건설 관련 EU 보조금 배정³²⁾

- EU 집행위원회는 CEF-E(Connecting Europe Facility for Energy)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수여할 것으로 발표함
- 자금 지원을 받는 회사는 앤트워프-브뤼헤항과 에너지 분야 기업 Air Liquide, 액체화물 터미널 운영사 Fluxys Belgium이며, 1만 4,460만 유로를 받을 예정임
- 해당 자금은 앤트워프-브뤼헤항에 세계 최초 공유 CO₂ 운송 및 수출 시설을 건설하는 데 배정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30년까지 앤트워프 항구 지역의 CO₂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Antwerp@C'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이며, CO₂ 수출 허브는 초기 수출 하역능력을 연간 2.5Mtpa로 계획, '30년에는 10Mtpa까지 확장할 계획임

29) AP NEWS(2022.11.23.),<https://apnews.com/article/europe-business-germany-global-trade-north-sea-a5f49c519471560e0706ff46bed83b5b> (2022.11.23. 검색)

30) Financial Times(2022.12.17.),<https://www.ft.com/content/6b241c46-26d8-4f6d-89e9-b570278208f5>(2022.12.21. 검색)

31) Hellenic shipping news(2022.12.01.),<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provisional-ets-agreement-earmarking-of-revenues-can-mark-turning-point-for-european-shippings-decarbonization/>(2022.12.01.검색)

32) 앤트워프-브뤼헤항 항만공사 (2022.12.12.),<https://newsroom.portofantwerpbruges.com/air-liquide-fluxys-and-port-of-antwerp-bruges-awarded-eu-funding-for-building-the-antwerp-co2-export-hub>(2022.12.15. 검색)

④ 로테르담항, 내년 1월부터 '혼합 접안' 공식 허용³³⁾

» '23년 1월 둘째 주부터 위험 화물을 실은 내항 운송 선박은 로테르담항의 약 50개 '혼합 부두'에 위험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과 함께 '혼합 접안'이 가능함

- 혼합 접안(mixed berthing)은 부두가 부족한 항만 상황으로 인해 항만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정책으로, 위험 화물을 운반하는 내항 선박이 보통 선박 바로 옆에서 접안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항만 관리자와 선사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23-'24년 중 관련 법(Inland Waterways Police Regulations)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33) 로테르담 항만공사(2022.12.19.),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mixed-berthing-officially-allowed-in-the-port-of-rotterdam>(2022.12.20.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멜버른항(Port of Melbourne), Swanson Dock West 개선 프로젝트 1단계 계약 체결³⁴⁾

» 멜버른항은 '2050 항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노후 컨테이너 터미널 개선 프로젝트를 3단계에 걸쳐서 진행 중임

- Swanson Dock West 터미널은 설계 수명인 30년에 가깝게 노후되어 향후 50년 동안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함
- 3개 선석으로 구성된 Swanson Dock West 터미널은 3단계 개발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2개 선석 운영을 유지할 계획임

② 헤들랜드항(Port Hedland), Spoilbank Marina 프로젝트 '22년 목표 달성³⁵⁾

» 헤들랜드항이 진행중인 1억 8,750만 달러 규모의 항만 개발 프로젝트 Spoilbank Marina 중 방파제 건설 및 준설 작업이 '22년 목표를 달성함

- 방파제 건설 및 준설 작업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2년 목표인 프로젝트 50% 완료 수준을 달성함
- 방파제 및 호안 건설은 외부, 내부 방파제 및 호안 건설이 포함되며, 약 62%가 완료됨
- 정박지 주변 19만 m² 구역의 준설 작업 또한 50%를 완료했으며, 정박지 주변의 약 25%는 이미 목표 수심에 도달했음
- Spoilbank Marina 프로젝트는 주 정부(Western Australia), 필바라 항만청(Pilbara Ports Authority), 필바라 개발청(Pilbara Development Commission)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조직이 주도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34) NSW port-news(2022.12.0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melbourne-to-restore-swanson-dock-west/>(2022.12.08. 검색)

35) Dredging today(2022.12.16.), <https://www.dredgingtoday.com/2022/12/16/port-hedland-project-coming-along-nicely/>(2022.12.20. 검색)

6) 아프리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Port of Durban), 항만 혼잡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재설계³⁶⁾

» 더반항의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시작된 항만물류 통합계획인 'M7' 프로젝트의 항만 진입로 3차선(현재 2차선) 확장 계획을 4차선 확장으로 변경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 투자 진흥 센터인 TIKZN(Trade and Investment KwaZulu-Natal)는 더반항의 혼잡으로 인해 연간 약 10억 랜드(약 5,800만 달러, 한화 약 4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 더반항은 현재 항만으로 접근하기 위한 배후도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추가 진입로 건설을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함

36) Africa Port(2022.11.30.), <https://www.freightnews.co.za/article/durban-city-and-port-stakeholders-tackle-congestion>(2022.12.20.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2년 9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1.0% 하락³⁷⁾

- » '22년 9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6%, 전년 대비 1.0% 하락한 141.5 기록
- 북미 동안지역 항만에서 지속되고 있는 항만 정체로 해당 지역의 지수는 전월 대비 7.4%, 전년 대비 2.1% 하락하면서 지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중국의 경우 9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4%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와 무이파 영향으로 상하이항과 닝보항의 일시적 폐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지역(중국 제외)은 전월 대비 4.4% 크게 감소 하였는데 이 역시 9월에 발생한 태풍 영향으로 부산항 등에서 운영 차질이 발생하면서 물동량이 크게 감소함
 - 대만의 경우도 중국 내 경기 회복 부진으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만 주요 항만인 가오슝항은 9월 물동량이 약 10% 감소함
- » '22년 9월은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면서 컨테이너 처리량이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아시아 및 중국 지역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감소세가 예상됨

37) Drewry,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2.11.21. 검색\)](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2.11.21. 검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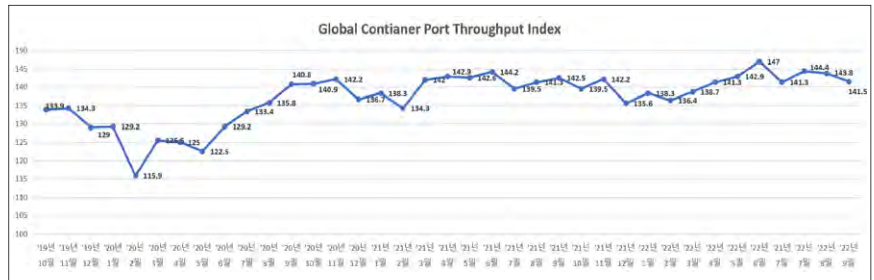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지역	2021년	2022년		전월대비	전년대비
	9월	8월	9월		
Global	142.9	143.8	141.5	-1.6	-1.0
Greater China	154.0	155.7	156.3	0.4	1.5
Asia(excl. China)	133.7	134.1	128.2	-4.4	-4.1
Middle East&South Asia	139.7	139.1	136.7	-1.7	-2.1
Eroupe	125.2	120.3	121.0	0.6	-3.4
North America	162.8	172.0	159.3	-7.4	-2.1
Latine America	130.5	132.0	132.6	0.5	1.6
Africa	122.4	111.7	124.3	11.3	1.6
Oceania	140.7	152.3	151.0	-0.9	7.3

주: 2012년 1월=100

자료: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주: 2012년 1월=100

자료: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② 컨테이너 공급 과잉 지속 우려³⁸⁾³⁹⁾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컨테이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2월 2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1,171.36으로 올해 1월 최고점 대비 약 77% 감소하였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짐

»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거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들이 내년에 건조가 완료되면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3년 컨테이너 선대 증가율은 7.3%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인 1.6%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해운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신조선 발주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임
- 당초 해운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IMO 환경규제로 인해 폐선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 폐선 대상 선박은 기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대 증가율을 상쇄시키지 못함

» 현재까지 컨테이너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아 당분간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38) 파이낸셜뉴스(2022.12.04.), <https://www.fnnews.com/news/202212041811304476> (2022.12.21. 검색)

39) 에너지경제(2022.12.06.),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206010001245>(2022.12.21 검색)



2) 양곡

① 11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10월에 이어 전월 대비 0.8% 하락한 161.9 기록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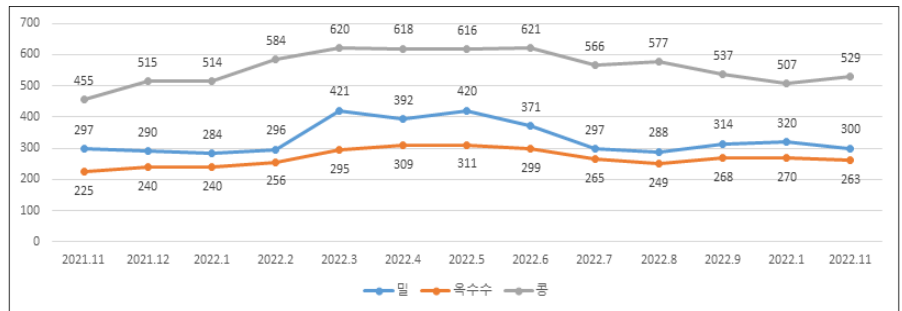
» 흑해 지역의 밀 수출 계약 연장이 합의됨에 따라 세계 밀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밀 국제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6.1% 하락

- 반면 콩의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4.2% 상승한 529달러/톤을 기록했으며, 중국 방역 정책 완화로 콩의 수요 증가 기대가 상승했으나 미국의 콩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가격 상승폭 제한이 예상됨
- 11월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옥수수 생산량 상향조정으로 인해 전월 대비 2.5% 하락한 263달러/톤임
- 세계 경기침체와 달러화 강세, 전분기 대비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22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 가격 또한 전 분기 대비 1.3% 하락(162.2)할 것으로 전망됨

40)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월보 12월호 (2022.11.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947/page/11\(2022.12.7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947/page/11(2022.12.7%20검색))

국제곡물 선물가격

(단위: 달러/톤)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297	290	284	296	421	392	420	371	297	288	314	320	300	6.1	1.0
옥수수	225	240	240	256	295	309	311	299	265	249	268	270	263	2.5	16.9
콩	455	515	514	584	620	618	616	621	566	577	537	507	529	4.2	16.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시장정보 세계 곡물 가격동향(원자료: 시카고선물거래소), [http://www.krei.re.kr:18181/new_sub01\(2022.12.21. 검색\)](http://www.krei.re.kr:18181/new_sub01(2022.12.21.%20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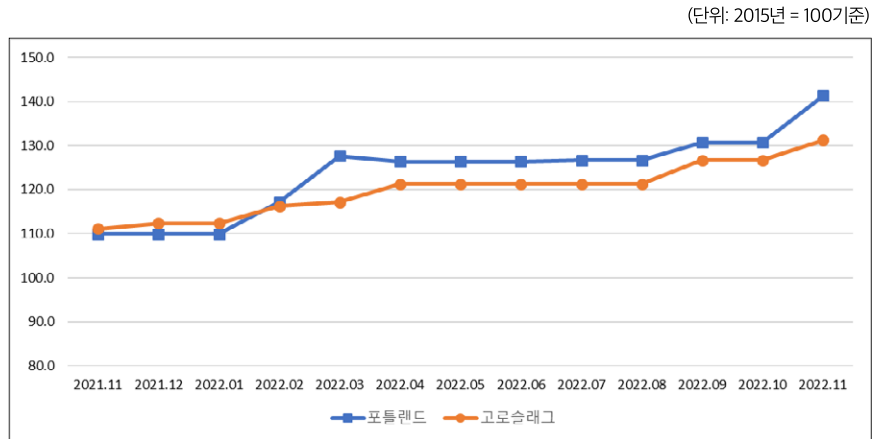
① 11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⁴⁾ 동반 상승

» 포틀랜드 시멘트의 국내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8.1%,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하였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월 대비 3.6%,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함

- 시멘트 제조사의 원재료 및 운송비 부담에 따른 생산량 감소, 시멘트 가격 인상과 육상 및 철도운송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 등으로 시멘트 수급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해상운송을 통한 연안물동량은 국내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육상 및 철도운송의 환경변화에 따라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4) 국내 생산자가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통계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10.0	110.0	110.0	117.1	127.7	126.4	126.4	126.4	126.7	126.7	130.7	130.7	141.3	8.1	28.5
고로슬래그	111.2	112.4	112.4	116.3	117.1	121.3	121.3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3.6	18.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0.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0. 검색))

② 충청도, 시멘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허브 클러스터 추진⁴²⁾

- » 충청도는 정부의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로 선정한 CCUS 기술을 도내 시멘트 산업 분야에 적용해 '중부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
- 정부의 CCUS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위해 설립된 K-CCUS 추진단은 전국을 지역적 특성과 산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4대 권역(서해권, 남해권, 중부권, 동남권)으로 나눠 검토하고 있음
- 중부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도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집약해 산업화하는 내용임
- 충청도에는 전국 10개 시멘트 제조 공장 중 총 4개가 있어 전국의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함
- 시멘트 공장이 많은 제천 및 단양 지역에 클러스터가 위치한다면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과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42) 충청미디어 (2022.12.18.), <https://www.thecm.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52>(2022.12.20 검색)

4) 모래

① 11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22년 2월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가 '22년 4분기 들어 급격하게 상승 중임
- 인천 바다골재 채취허가 만료, 지역별 골재 수급 불균형 발생 등 악재가 겹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됨
- '23년 건설경기 침체 및 골재 수급 불확실성이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으나 인천 및 서해권의 바다 골재 채취 허가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모래 물동량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5.1	125.1	125.1	125.1	127.1	129.4	129.4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5	7.9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0.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0. 검색))

② 국토교통부(국토부), 불량 골재 근절을 위한 단위수량검사 실시⁴³⁾

» 국토부는 불량 콘크리트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단위수량검사’를 지난 12월 1일부로 실시함

- 단위수량검사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120m³마다, 혹은 배합이 바뀔 때마다 수분함량을 측정해 콘크리트 1m³에 포함된 물의 양이 185kg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검사임
- 현재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허가량 제한으로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채취를 제한하고 있어 불량 골재가 다량 유통되고 있음
- 국토부는 골재 품질 균일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2,016개의 골재 업체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14곳으로 1% 미만임

43) 아시아경제 (2022.12.12.), [https://www.asiae.co.kr/article/industry-IT-all/2022121207492998962\(2022.12.20 검색\)](https://www.asiae.co.kr/article/industry-IT-all/2022121207492998962(2022.12.20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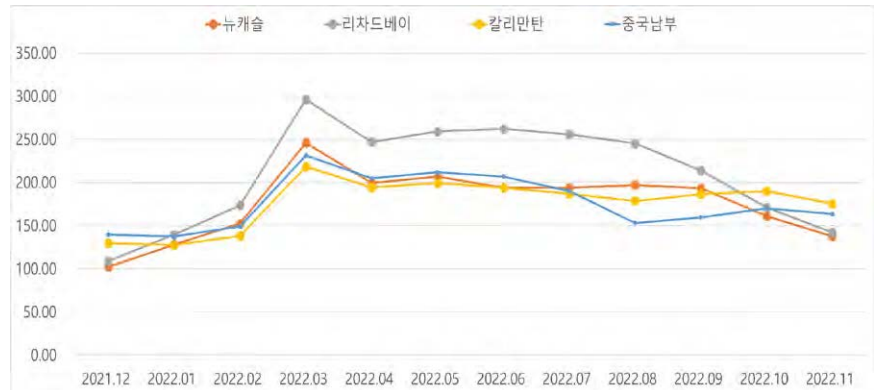
① '22년 11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 지속⁴⁴⁾

» 중국의 석탄증산 기조('22년 중국의 석탄생산 추정량 44억톤, 전년대비 8% 증가세) 및 산업생산 부진 등의 여파로 유연탄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 유연탄의 지역별 가격은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은 전월대비 14.5%, 남아공 리차드베이산은 16.9%,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전월 대비 7.8% 하락함

44)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12.19.)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12.22.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12.22.검색))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02.3	128.2	152.4	246.0	199.4	206.8	193.8	193.8	197.0	193.4	161.2	137.7	-14.5	18.9
리차드베이	109.0	139.4	173.6	296.1	247.0	259.1	262.1	256.0	245.1	213.9	171.0	142.2	-16.9	27.1
칼리만탄	129.8	127.5	138.1	218.4	194.3	199.2	194.0	187.0	178.5	186.5	190.1	175.3	-7.8	12.4
중국남부	139.7	137.5	149.0	231.4	204.8	211.6	206.9	190.1	153.2	159.6	169.8	163.4	-3.7	-1.5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① 세계 석탄 소비 80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⁴⁵⁾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2년 세계 석탄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에너지기구의 연간 시장보고서(Coal 2022)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80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함
-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과 더불어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함
-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석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25년까지 석탄 소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②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고로 개보수 계획⁴⁶⁾

»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1고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 운영을 잠시 중단할 계획임

- 1고로 개수사업은 포스코케미칼이 맡을 예정이며, 이에 현대제철과 포스코케미칼은 당진제철소 1고로 개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 고로 개수는 용광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를 신예화하는 작업임
- 이번 협약은 지난 '10년 1월 가동을 시작한 당진 1고로 개수공사 중 내화물 공급과 해체작업에 대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45) IEA(2022.12.16.), <https://www.iea.org/news/the-world-s-coal-consumption-is-set-to-reach-a-new-high-in-2022-as-the-energy-crisis-shakes-markets>(2022.12.21 검색)

4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12.09.),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534>(2022.12.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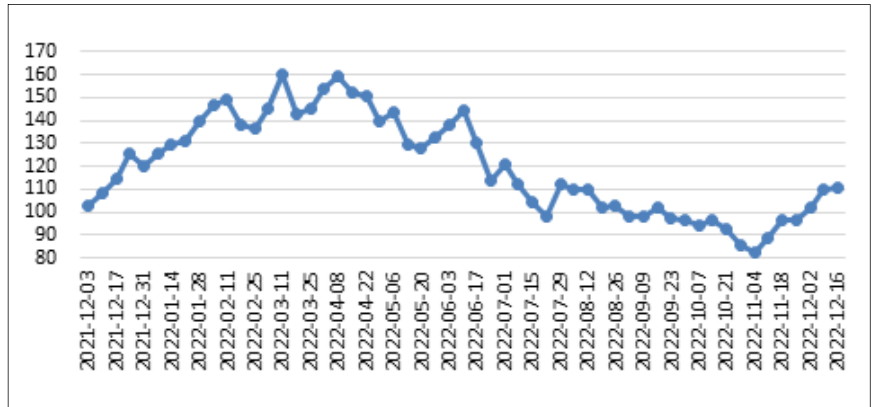
6) 철광석

① 철광석 가격 110달러 초반까지 상승⁴⁷⁾

»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10월 말 톤당 82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월 16일 111달러를 기록함

- 중국 당국은 12월 15~16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도 '안정 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내수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발표함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경제 전망도 낙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여 내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단위: 달러/톤)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12.16.), <https://www.kores.net/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2.12.21. 검색)

철광석 가격 추이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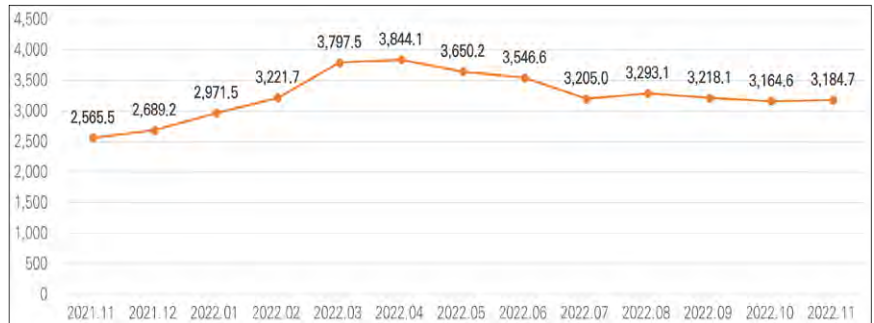
① 11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3,184.7로 전월 대비 0.6% 상승⁴⁸⁾

» 광물종합지수는 올해 4월 3,844.1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1월 기준 대비하게 반등하며 3,184.7을 기록함

- 광물종합지수 2,565.5를 기록했던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4.1% 상승함
-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과 더불어 광종별 공급차질 우려 등의 영향으로 동, 니켈, 아연 등 광물가격은 상승세를 보임

48)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광물종합지수, <https://www.kores.net/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2.12.22. 검색)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1	2022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689.2	2,971.5	3,221.7	3,797.5	3,844.1	3,650.2	3,546.6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0.6	24.1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조사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① EU,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관세 부과 전망⁴⁹⁾

» 유럽연합은 이르면 '26년부터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적용 대상 품목으로는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으로 결정됨
-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26년부터 부과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1년 기준 한국의 對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5조 6천억 원), 알루미늄 5억 달러(6,400억 원), 시멘트 140만 달러(18억 원), 비료 480만 달러(61억 원) 등임

49) 연합뉴스(2022.12.1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138052009?input=1195m>(2022.12.16 검색)

8) 목재

① '22년 1~10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218.9만 m³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⁵⁰⁾

»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가 증가 및 국내 수요부진으로 목재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목재류 수입물량 감소가 지속됨

- '22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원목은 15.6%, 제재목은 10.4%, 성형목재는 20.3%, 합판은 13.0%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은 15.0% 증가함

50)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2.11.23.),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2년 누적 (1-9월)	2021년 누적 (1-9월)	증감률 (%)
원목(천m ³)	2,189	2,593	-15.6
제재목(천m ³)	1,582	1,765	-10.4
성형목재(톤)	80,627	101,124	-20.3
합판(천m ³)	1,162	1,335	-13.0
파티클보드(천m ³)	1,065	1,227	-13.2
섬유판(천m ³)	172	176	-2.3
우드펠릿(천 톤)	3,164	2,751	+15.0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2.11.2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180WmTX3Ea3j07wX3XvID11K4BxBCUz76e5UHwY8IAQWnUb20YrNZ1X1XOPC1.frswas02_servlet_engine5?nttd=3176782&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2.12.21.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180WmTX3Ea3j07wX3XvID11K4BxBCUz76e5UHwY8IAQWnUb20YrNZ1X1XOPC1.frswas02_servlet_engine5?nttd=3176782&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2.12.21. 검색))

②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23년부터 확대 운영⁵¹⁾

» 한국임업진흥원은 '23년 1분기부터 합법성 입증에 필요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 품목이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고 공지함

- 우리나라는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불법 벌채된 목재의 유통 및 유통을 근절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도입함
- 본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27개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해당 국가에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각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 기존 합법성 입증에 필요한 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 목재(HS 4407), 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등 7개 품목이었으나, 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단판(HS 4408), 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펠프(HS 4701~5) 등이 추가됨

51) 한국관세신문(2022.12.09.),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3963>(2022.12.15. 검색)

9) 고철

① 국내 고철 가격 2개월 만에 반등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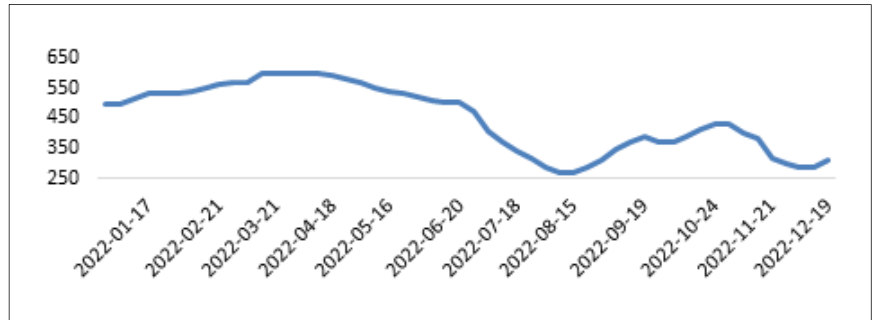
» 국내 고철 가격(경량A, B 평균, 제강용 대상 야드 도착도 기준)은 12월 셋째 주 2만 원 상승하며 2개월 만에 반등함

- 지난 달부터 이어진 해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고철 가격도 상승함
- 또한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고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선행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수입 가격은 11월 셋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하였으나, 철근 수출 거래 부진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52) 철강금속신문(2022.11.19.), <http://pdf.snmnews.com/PDF/REAL/2022/12/21/PS011221010100301B0002.pdf>(2022.12.21. 검색)

고철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철강금속신문 가격DB(2022.12.19.), [https://snmtrend.snmnews.com/\(2022.12.21. 검색\)](https://snmtrend.snmnews.com/(2022.12.21. 검색))

10) 철재

① 후판 가격 톤당 95만 원까지 감소 후 4주간 보합세⁵³⁾

» 하반기 선박용 후판 가격의 인하 폭을 두고 제조업계와 조선업계의 가격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협상의 경우 9월쯤 마무리되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2월까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
- 조선업계는 철광석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절반가량 하락했다는 이유로 추가 가격 인하를 주장하나, 후판 제조업계는 철광석 가격 변동성이 커 해당 인하 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후판업계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움직임이 보이면서 철광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포스코 침수 사태 및 현대제철 노조 리스크로 후판 가격을 무리하게 낮출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후판 가격 협상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 업계에 공동 세미나 및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할 방침임

② 열간압연강판 가격 2달 연속 감소⁵⁴⁾

» 열간압연강판 11월 가격은 국내 수요 부진, 열연공장 및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105만 톤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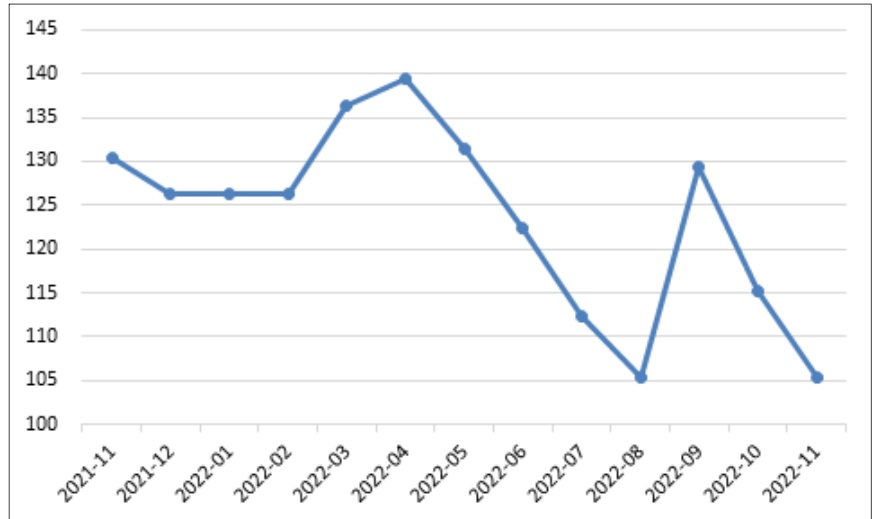
- 12월에는 겨울철 비수기 제품 판매 악화로 인해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내년 1월 중순 이후 제품 가격 반등의 귀추가 주목됨

53) 철강금속신문(2022.12.07.), [http://pdf.snmnews.com/PDF/REAL/2022/12/07/PS011207010100601B0001.pdf\(2022.12.08. 검색\)](http://pdf.snmnews.com/PDF/REAL/2022/12/07/PS011207010100601B0001.pdf(2022.12.08. 검색))

54) 철강금속신문(2022.12.05.), [http://pdf.snmnews.com/PDF/REAL/2022/12/05/PS011205010100701B0002.pdf\(2022.12.21. 검색\)](http://pdf.snmnews.com/PDF/REAL/2022/12/05/PS011205010100701B0002.pdf(2022.12.21. 검색))

(단위: 천 원/톤)

국내 열간압연강판 가격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12.21.), <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2022.12.21. 검색)
 주 : 2022년 11월 가격은 11/1~11/31 조사가격의 평균을 의미함

③ 미국, EU에 탄소 배출량 기준 철강 관세 제안⁵⁵⁾

» 미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우호국과 관련 무역기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무역 담당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생산국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개선할 것을 주요국들에 제안하고 있음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탄소 저배출 금속 클럽'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EU와 협상 중임
- 새 클럽 규정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클럽 회원국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가에 철강을 수출할 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기준보다 낮은 국가는 관세를 내지 않으며, 클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 클럽 회원국에 수출할 시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됨

55) 철강금속신문(2022.12.21.), <http://pdf.snmnews.com/PDF/REAL/2022/12/21/PS011221010100101A0001.pdf>(2022.12.21. 검색)



11) 자동차

①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만 7,442대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⁵⁶⁾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내수는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신차 출고가 확대되며 연중 최대 판매량 기록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30,213대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연말 전기차 보조금 소진 영향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월 대비 판매는 20.5% 감소함
- ▶ 수출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소형SUV의 수출 증가, 북미 전기차 수출 호조 등이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21만 9,489대를 기록함
- 수출액은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완성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54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함
-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전기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한 50,042대로 '21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 생산은 최근 4년 중 최대 월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반도체 수급 차질로 생산이 저조했던 중견 3사의 생산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25.4% 증가한 37만 9,797대를 생산함

56)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2.12.13.),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69&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12.21.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69&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12.21.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2.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전월비	동월비	1~11월
내수	1,440,786	123,909	1,310,536	120,580	127,442	1,263,445	5.7	2.9	-3.6
수출	2,040,572	175,621	1,857,087	207,594	219,489	2,084,582	5.7	25.0	12.3
(완성차 수출액)	46,465	4,120	42,232	4,916	5,398	48,703	9.8	31.0	15.3
생산	3,462,499	302,983	3,143,302	328,173	379,797	3,403,660	15.7	25.4	8.3
(부품 수출액)	22,776	1,842	20,655	1,841	1,857	21,344	0.9	0.8	3.3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2.12.13.),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69&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12.21.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69&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12.21. 검색))



② '23년 자동차산업 내수 1.5%, 수출 3.1%, 생산 1.4% 소폭 성장 전망⁵⁷⁾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우리 자동차산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산업여건을 전망한 '2022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3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 '22년은 반도체 수급난, 러·우 전쟁,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내수 -2.3%, 수출 11.7%, 생산 6.9% 성장으로 대체로 선방하였으며, 특히 수출액은 5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경신 이 예상됨
 - '23년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회복과 더불어 누적 수요가 이연되며 소폭 성장이 기대되나, 팬데믹 이후 각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며 고물가·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할 전망이다
 - 내수는 누적된 대기수요가 해소되고 전년도 저조한 실적의 기저효과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와 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제한하여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2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차질,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의 악재가 있는 반면,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더불어 교환율 지속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3.1% 증가한 235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생산은 건조한 국내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원자재 및 반도체 수급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1.4% 증가한 375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57)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2.12.05.), https://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678&menu_id=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2.12.07. 검색)

12) 잡화

① '22년 10월 국내 기계 산업,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181억 9,300만 달러, 수입은 8.9% 증가한 113억 100만 달러 기록⁵⁸⁾

- » 10월 기계 산업 수출 금액은 전기기계업(-30.3%)과 일반기계업(-4.2%)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수송기계(+16.5%)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 한편 전기기계 부문(-17.7%)과 조선업(-19.9%) 부문의 감소로 기계 산업 수출 누적 금액(10월 기준)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795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2. 10				'22. 1~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8,193	0.2	11,301	8.9	179,548	-1.3	115,793	2.0
일반기계업	4,041	-4.2	3,350	-0.8	43,971	1.7	36,050	-3.0
전기기계업	2,752	-30.3	2,498	10.3	29,792	-17.7	24,093	12.8
정밀기계업	1,590	-2.8	2,159	3.9	15,762	-0.6	23,570	-3.3
수송기계업	8,701	16.5	2,714	31.8	80,436	3.7	26,227	5.1
조선	1,405	-3.4	180	19.7	13,828	-19.9	1,976	-18.5
금속제품업	1,109	24.3	581	-3.6	9,587	6.9	5,853	2.6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2월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5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2월호(2022.12.14.),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2.12.22. 검색)

'22년 10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②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의 11월 제조업지수는 43.0p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7.8%, 전월 대비 7.7% 감소함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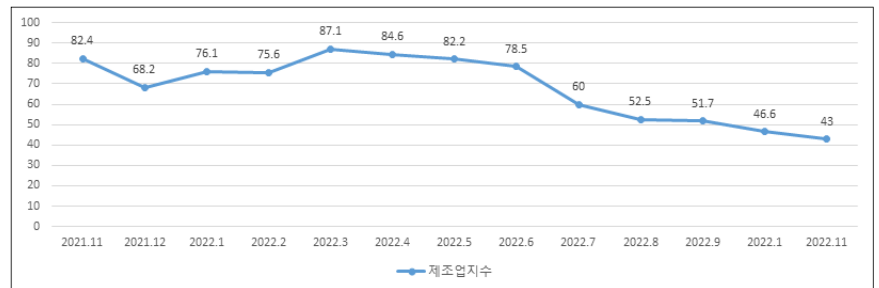
» ISM 제조업지수는 매월 미국공급관리협회에서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p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22년 11월 제조업지수는 두 달 연속 50p 이하 수치를 기록함
- 두 달 연속 제조업 지수가 50p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항만을 통해 교역되는 제조업 관련 물동량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59) Trading Economics(원자료: 미국공급관리협회 ISM),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sm-manufacturing-prices> (2022.12.8. 검색)

(단위: 2015년 = 100 기준)

ISM 제조업지수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지수	82.4	68.2	76.1	75.6	87.1	84.6	82.2	78.5	60	52.5	51.7	46.6	43.0	-7.7	-47.8

자료: Trading Economics(원자료: 미국공급관리협회 ISM),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ism-manufacturing-prices> (2022.11.20. 검색)



13) 유류

① 10월 국제유가, Dubai, Oman,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하락, 전년 동월 대비 상승

» 월별 유가는 6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11월 전월 대비 4.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을 기록함

- 급등하였던 유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석유시장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봉쇄정책 완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충유 등으로 원유 수요는 일부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Dubai	80.3	73.2	83.5	92.4	110.9	102.8	108.2	113.3	103.1	96.6	91.0	91.2	86.3	-5.4	7.4
Oman	80.5	73.2	83.6	92.8	111.1	102.8	108.2	113.3	103.3	97.0	91.0	91.2	86.3	-5.4	7.1
Brent	80.9	74.8	85.6	94.1	112.5	105.9	112.0	117.5	105.1	97.7	90.6	93.6	90.9	-2.9	12.4
WTI	78.7	71.7	83.0	91.6	108.3	101.6	109.3	114.3	99.4	91.5	83.8	87.0	84.4	-3.0	7.3
평균	80.1	73.2	83.9	92.7	110.7	103.3	109.4	114.6	102.7	95.7	89.1	90.7	86.9	-4.2	8.6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② EU, 금수조치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소세⁶⁰⁾⁶¹⁾

» S&P Global에 따르면,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시행을 앞두고 11월 5개 국가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함

- EU 회원국 중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한 국가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 5개 국가에 불과함
- EU로의 러시아산 해상 원유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1~2월에는 185만 b/d를 기록했으나 대러 제재로 11월 120만 b/d가 감소함

6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1.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1.24. 검색)

6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2.0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08. 검색)

- » EU는 제6차 대러 제재 중의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12월 5일부터 시행했으며, '23년 2월 5일부터는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도 금지될 예정임
- 다만, Druzhba 송유관을 통한 일부 러시아산 Ural 원유 수입(약 30만 b/d)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정유공장에 계속 공급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축소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EU로의 해상원유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전쟁 전 EU의 해상원유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던 러시아 비중은 11월 첫 주에 8%로 감소함
- EU의 해상원유 수입은 미국과 노르웨이가 전체 물량의 25% 이상을 차지(10월 기준)했으며, 이외에도 유럽 정유사들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알제리, 카메룬,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
- 특히, 등·경유 정제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 저유황 경질유에 대한 유럽 정유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 등 등·경유 생산수율이 높은 아프리카산 원유 수요가 증가함
- 반면, EU로 향하던 러시아산 원유의 절반은 아시아(중국, 인도, 튀르키예)에 수출되었으며 특히 인도로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S&P Global은 이미 러시아의 원유 수출처가 EU 외 국가로 재조정되었으며, EU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대체하는 등 무역 흐름 변화가 이미 반영되어 초기 제재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③ OPEC, 내년 석유 수요 220만 배럴 증가 전망⁶²⁾

- » OPEC은 12월 보고서를 통해 '23년 세계 석유 수요를 전년 대비 220만 배럴 증가한 1억 180만 배럴로 전망함
- OECD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30만 배럴 증가에 그치나 중국 및 인도 경기 회복으로 비 OECD 수요가 190만 배럴 증가함
- 내년 1분기는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위축, 2분기부터 리오프닝 및 항공 수요 증가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많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경고함
- 석유 공급은 비OPEC 공급 증가로 전년 대비 15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및 노르웨이 생산은 증가, 러시아 및 멕시코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④ S&P 글로벌, 내년 아시아 석유 물류 공급사슬 큰 변화 전망⁶³⁾

- » '23년 아시아 석유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증가, 반면 아프리카 및 미국산 원유는 아시아 대신 유럽으로 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3년 2월 5일 EU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 영향으로 아시아산 석유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인도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산 원유

6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2.1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6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2.2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수입 비중은 1% 미만이었으나 10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함

⑥ 미국의 LNG 수출, '33년까지 3배 증가 전망⁶⁴⁾

- » 우드매킨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와 구매자의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원 추구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LNG 수출이 약 3배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대한 LNG 수출을 증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급을 삭감하면서 EU는 지난 6월에 사상 최초로 러시아 PNG(Pipeline natural gas) 보다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수입함
- 미국은 겨울철을 앞두고 EU 동맹국 가스 저장 지원을 위해 많은 양의 LNG를 유럽으로 수출했으며, 현재 LNG 수출은 대부분 EU와 영국으로 유입되어 미국 전체 출하량의 약 70%를 차지함
- 미국산 LNG가 수요가 가장 많은 아시아로 대부분의 향하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EIA는 러시아-유럽 간 파이프라인 수출 감소로 '23년까지 미국의 LNG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⑥ 에너지 위기의 독일, LNG 해상수입을 위한 첫 LNG부두 가동⁶⁵⁾⁶⁶⁾

- » 러시아가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량의 50% 이상을 러시아산에 의존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음
-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공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했으며, 서방 제재로 가스터빈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9월초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함
- 독일 정부는 해상을 이용해 LNG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해에 면한 LNG터미널에서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LNG를 처리할 예정임
- » 독일 에너지회사인 유니퍼는 빌헬름스하펜항에 건설된 LNG 전용 터미널이 올해 연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LNG 수입시설 투자를 기피했으나 송유관으로 공급받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탈피를 위해 해상을 통한 LNG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항만운영사인 니더작센포트는 빌헬름스하펜항에 부유식 LNG 부두를 완공·운영을 개시했으며, 독일에 LNG 부두가 개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해당 부두에서는 해상에서 LNG를 저장하고 재기화 할 수 있는 설비인 FSRU가 부두에 접안하여 선박에서 직접 LNG를 옮겨 실어 기화 후 육상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하게 됨
- 해상으로 수입된 LNG는 유니퍼가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 전국의 수요자에게 공급될 예정임
- 추가적으로 브룬스비텔, 슈타데, 루브민 등의 항만에도 LNG 전용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터미널이 모두 완공되면 총 6척의 FSRU를 운영해 연간 LNG 수요량의 3분의 1을 조달할 계획임

6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1.2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65) 코리아워킹가제트(2022.12.01.),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6370\(2022.12.01.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6370(2022.12.01. 검색))

6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2.2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 한편,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전년 55%에서 올해 약 20%로 감소함

-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독일 가스 사용량 중 러시아산 비중이 '20년 55%에서 올해 약 20%로 감소함
- 독일은 LNG 수입 기지 건설과 함께 해외 도입처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지난 11월 카타르, 코노코필립스 등과 2026년부터 최소 15년간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다만 LNG 수입시설의 신속한 건설에도 불구하고, 독일당국은 분배 등 특단의 조치없이 올 겨울을 넘기려면 가스를 절약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가정과 기업이 가스 소비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⑦ 수송용 도시가스 판매량 지속 감소⁶⁷⁾

» 수송용 도시가스 판매는 도시가스사들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평가됐던 부문이나 최근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도시가스의 수송용 판매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환경 개선을 이유로 천연가스버스를 줄이고,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대체였던 천연가스버스가 전기버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최대 장점이었던 연료비가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 여파로 크게 오르면서 수송용 부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시가스업계는 수송용 부문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수송용 도시가스요금을 연간 소비패턴이 비슷한 연료전지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할 신규 수요로 전기버스와 경쟁이 가능한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보에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⑧ 내년 중국 천연가스 수요 소폭 증가 예상⁶⁸⁾

»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로 내년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등 천연가스 수요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수요 회복세는 급격한 V자 반등이 아닌 매우 완만한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증가폭도 대체 에너지 사용 증가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 경제회복과 함께 재생에너지, 석탄 등 대체 에너지 사용이 동반 증가하면서 가스 수요는 올해보다 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증가분만큼 천연가스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를 통해 충당될 예정임
-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PNG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NG 수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67) 가스신문(2022.12.06),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53>(2022.12.16. 검색)

6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2.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2.22. 검색)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유가 상승으로 생산했던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나프타는 전년 동월 대비 4.0% 높은 수준임

-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프타의 경우 아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석유화학업계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설비투자가 이어지고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25	1508	1653	1843	2152	1957	2013	1841	1802	1608	1611	1704	1690	-0.9	4.0
에틸렌	1211	1168	1092	1148	1348	1486	1406	1292	1150	1105	1120	1123	1100	-2.1	-9.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2.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2.12.22. 검색))

② 일본, 니가타현 육상가스전에서 수행할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시추 작업과 시설 건설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 단행⁶⁹⁾

» 일본의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고, 새로운 시설에서 연간 700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임

- 생산된 수소의 일부는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발전용으로 사용될 계획임
-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사업을 통해 지중 가스 저장소에 주입될 예정임
- 현재 제안된 블루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사업 대부분이 개념적이거나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생산공장 건설을 승인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업 중 하나임

6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2.11.2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1.24.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11.24. 검색))

- 이번 사업은 최소 연간 10만 톤의 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30년까지 3개 이상의 사업을 상용화하는 동시에 연간 2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주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④ 정부,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으로 '50년 170조 원 산업으로 키울 계획⁷⁰⁾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화학산업 포럼 결과보고 대회를 통해 석유화학·정밀화학·플라스틱 산업 지원정책을 공개함
- 정부는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해 전체 산업 매출 규모를 현재 95조 원 수준에서 '30년 150조 원, '50년 170조 원까지 성장시킬 계획임
-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 대신 바이오매스 활용, 화석연료를 전기그린수소로 대체하는 연료 전환 추진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임
- 폐식용유·팜유 등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하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공기업은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울산, 여수, 대산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업종특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정밀화학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리, 정보통신 등 5대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을 높일 계획임
- 플라스틱 산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공정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2%인 부가가치율을 '30년까지 37%로 높일 계획임
- 추가적으로 화학산업 핵심 품목 국산화 R&D를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신규 비축물자로 지정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법'(가칭) 제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70) 파이낸셜뉴스(2022.12.09), [https://www.fnnews.com/news/202212090901554148\(2022.12.15. 검색\)](https://www.fnnews.com/news/202212090901554148(2022.12.15.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2. 12. 29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